

# 임상간호교육의 진행과정에 있어

장 순 복  
<연세의료원 수간호원>

## 수간호원의 입장에서

### 1. 서 론

급변하는 사회변천과 가치관의 변화, 폭발적인 학문연구와 이론의 번천속에서 간호교육의 목표와 내용도 그 변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호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변화에 따라 임상 간호교육과정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위해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하겠읍니다. 학생, 교수, 임상지도자간의 만족할만한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 필연적인 요구는 무엇인지 수간호원의 입장에서 임상교육과정에 어떻게 어느정도로 개입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돌이켜 보고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 2. 본 론

교육학자 Ralph Tyler 는 말하기를 “어떠한 직업이든 그것이 전문적이 되려면 일상화된 기본 조직이나 숙련보다는 주요원칙과 개념을 능동적으로 응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복잡한 책임 임무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직 간호원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추려면 간호활동에 있어서 환자의 요구를 발견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좋은 간호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시행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제반 원칙을 적용하는 이해력과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력과 적용하는 능력, 즉 전인간호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구체적인 기회가 간호학생의 경우에는 주로 임상실습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실습 범위는 학과별로 다양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병실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임상강사로 임명받은 교육병원의 수간호원 입장에서 임상교육과정의 경우를 예기하려 합니다. 대체로 학생들의 실습장소, 분야, 기간등의 계획, 지식전달 등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배치된 부서에서의 실제적인 실습내용의 구체적인 진행은 임상강사로 임명받은 수간호원의 지시에 의존하는 수가 많읍니다. 학년별로 임상지도 강사의 개입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속한 임상강사가 완전히 책임지도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고 내용상이든 형식상이든 학교에 속한 임상강사와 수간호원이 완전책임을 지는 형태의 경우는 물론, 수간호원과 학교에 속한 임상강사가 공동 책임지는 경우에 수간호원이 임상실습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수행해야 되느냐가

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상실습의 책임자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학생이 학과과정에서 배운 주요원칙과 개념을 능동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식과 임상실습과의 응용 및 적용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 이해시키는 교육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은 1969년 하영수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와 1970년 최영숙, 이공순의 「간호학교 학생들의 제문제점에 관한 고찰」등에서 보인바와 같이 간호학생들의 학생시절 불만의 원인이 학교에 대해서는 '교수가 지식전달에 편중하는 경향'이라는 결과 학습분량의 부적당, 취미생활의 결핍에 대한 것이었고 실습교육에 대한 불만으로는 회의적인 실습교육특적, 비과학적이고 불충분하면서도 시간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실습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아 이미 습득한 지식과 실습과의 사이에 놓인 「갭」을 없애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행정적으로도 교육방침으로서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상강사의 책임을 지는 수간호원은 이러한 「갭」을 메꾸어 주는 주요인물로 생각됩니다. 간호는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간호원이 학생의 임상교육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도 함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고 책임있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수간호원 자신의 교육자적 소양을 길러야 하겠읍니다. 간호업무에는 실무교육, 환자교육, 부속인원 교육등 끊임없이 교육이 계속 됨으로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한 특별한 목적 이전에 수간호원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자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임상강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수간호원은 간호원이나 학생이 환자교육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높은수준으로 성취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전인간호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구체적인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처리는 늘 과학적이고 근거있으며 자신있는 평가를 하며 평가도구를 점검, 방법을 정립하고 평가과정을 개발하여 被평가자의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장점을 길러주고 단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간호원이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피평가자와 자신있게 대화할 수 있다함은 평가자의 편에서 본다면 자신이 개입했던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고 좀더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개입여부를 파악하게하며 피평가자의 편에서는 인격, 성격, 지식의 활용면에서 성장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실습과정의 평가를 위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임상경험은 ① 가치있고 즐거운 것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② 미처 이해되지 못한 점들의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③ 학생들의 방향지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임상교육은 깊은 신뢰속에서 효율성있게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요구가 만족하리 만큼 이뤄지지 않게됨은 임상강사의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병원의 임상업무 책임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수간호원의 입장에서는 간호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노력은 하지만 학생교육에 대해서는 주요임무가 아닌반치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행정부서에서 계획, 실시하는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학생의 임상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은 부족합니다. 수간호원이 학생임상교육과정에 개입할수있는 충실도나 노력의 정도에 있어서 교육적인, 행정적인 배경이 없이는 그 내용과 수준의 일관성이 없게되며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수간호원의 임상교육과정에 대한 개입정도가 일관성을 잃게되는 이유는 첫째, 학교 당국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분명치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된 임무규정이 정해있지 않다는 점과 둘째, 학생임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소속된 임상강사와 공동책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책임지는 방법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대화의 부족시는 오히려 꼭 필요한 내용마저 소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하겠읍니다. 셋째, 수간호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에 개입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간호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과 내용이 일관성을 갖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려면 수간호원

이 임상실습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병실업무에 대한 책임을 느껴듯이 임상실습 과정도 전적으로 책임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병원이 대학의 부속기관이며 교육기관이란 사실만으로는 그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배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같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게 하려면 병원업무를 위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과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학교에 속해 있다고 느껴져 조금이라도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한 개입이 소홀히 생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을 주려면 학생임상교육을 위한 개입의 노력과 경험정도가 평가 되어야 합니다. 임상강사로서 명명된 수간호원의 경력과 능력이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평가된 사항에 따라서 학교당국은 책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벌써 10여년전 어느 대학에서는 수간호원이나 감독이 학교의 정식 교직원으로서 부분적인 강의도 담당, 실습을 지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교부의 인정도 받았던 사실이지만 계속되지 못한 것은 그당시 해외취업의 이직율이 높았다던가 유경험자의 숫적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소속감을 느낄때 수간호원은 학생을 위한 입장에 서고 자신있게 충분한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간호원을 병원에 속한 직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수간호원과 자유로이 대화하여 해결하려는 태도 보다는 임상에서 생긴 문제를 그대로 학교에 갖고가서 다시 임상에 돌아와서 해결하게 되는 비능률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 3. 결 론

과중한 병실의 업무량 때문에 학생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현재 수간호원이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과정의 구체적인 계획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요구로는 이 작은 계획, 적은 시간봉사를 하는 태도가 과외로 한다는 생각을 떠나서 학생실습을 돕기위한 목적이라서 할 수 있는 교육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니

다. 학생임상실습과정의 준비와 시행은, 병원업무와 똑같은 책임과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상이 학생을 위한 실습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수간호원이 교수진으로서의 책임을 겸직했던 시대의 문제였던 인적 경험적 부족은 오늘날 많이 보충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이 높아가는 이때에 수간호원이 교수진의 일원일 수 있도록 겸직시켜 기대치를 높이고 교육적인 기회를 충분히 주어 자질을 향상시키며 계속평가의 기회를 가지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앞으로 더우 연구해볼 바이지만 학생임상교육에는 지식과 응용 사이의 「갭」을 메꾸어 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만족한 경험을 주게 될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수간호원이 교육자적인 태도로서 자기적업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인정할 때에 학생들도 간호학을 택한 것에 대해 긍지를 갖을 수 있고 임상 경험이 즐겁고 만족스러울때에 학교생활이 만족스럽게 될것으로 믿는바입니다. 그러므로 임상교육 과정이 무엇보다 학생의 교육을 위한 면에서 계획 실천되기 위해서는 수간호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주어지는 책임과 기대치를 맞추어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참 고 문 헌

- 전영자; "임상교육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971년 동권 53호, p 47~53
- 이영부; "간호교육과 현대적이념"  
대한간호 1969년 제8권6호 p 18~22
-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1970년 제9권3호 p 28~29
- 최영숙, 이공순; "간호학생들의 제문제점에 관한 고찰"  
대한간호 1970년 제9권6호 p 47~56
- 차정순; "간호학생 임상실습 평가에 대하여"  
대한간호 1970년 제9권4호 p 47~52
- 김재은; "교육평가"  
대한간호 1971년 제10권5호 p 38~41
- 전산초; "내외과간호학", 수문사 p 1~14
- 김광주, 이영자, 최공옥; "학생을 통해본 내외과간호학 임상교육의 성취도"  
대한간호 1973년 제12권4호 p 65~80